

2016년04월06일년 수능(윤리와사상) 필기시험 기출문제 답안

【1과목 : 19문제】 과목구분없음	1	2	3	4	5	6	7	8	9	10
	⑤	③	③	①	⑤	⑤	④	①	②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④	④	④	⑤	③	④	②	①	②	

전자문제집 CBT 홈페이지 : <https://www.cbtestpro.kr>

최신 수정 자료와 해설(오타 · 오답 · 규정변경)은 cbtestpro.kr 웹 및 앱에서 확인하세요.

기출문제의 저작권은 출제기관에 있습니다. cbtestpro.kr 및 관련 앱에서는 편집 및 재구성 작업만 하였음을 밝힙니다.



전자문제집 CBT

빠르고 효과적으로 배워 시험 합격을 노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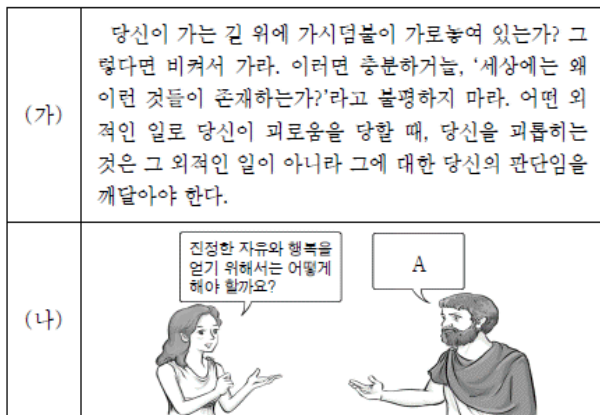
【1과목】 과목구분없음 (19문제)

1. 그림의 (ㄱ)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보살행(菩薩行)을 통해 자비를 실천해야 하네.
- ② 인의(仁義)를 실천하여 악한 본성을 억제해야 하네.
- ③ 존비친소의 구별 없는 무조건적 사랑을 펼쳐야 하네.
- ④ 세상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소요(逍遙)해야 하네.
- ⑤ **옳은 일을 반복적으로 실천하여 호연지기를 길러야 하네.**

2. (가)를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대답할 때, (나)의 A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종교적 덕을 실천하여 인격신에게 귀의해야 합니다.
- ② 공공의 삶을 피하고 은둔자적인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 ③ **이성을 통해 자연의 질서를 이해하고 순응해야 합니다.**
- ④ 운명론적인 결정론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개척해야 합니다.
- ⑤ 정념에 따른 욕구를 충족시켜 평온함의 상태에 도달해야 합니다.

3.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우리의 정신을 사로잡고 있는 우상(偶像)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리조차 얻을 수 없게 만든다. 이러한 우상들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경험적 관찰을 통해 개념과 공리(公理)를 형성해야 한다.
을: 우리는 감각이 때로 우리를 속인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단 한 번이라도 우리를 속인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편이 현명하며, 일단 모든 것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 ① 갑은 과학적 지식을 통해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고 본다.
- ② 갑은 참된 인식을 위하여 선입견을 타파해야 한다고 본다.
- ③ **을은 확실한 지식은 없으며 있더라도 파악할 수 없다고 본다.**
- ④ 을은 의심할 수 없는 명제를 찾기 위해 방법적 회의를 강조한다.
- ⑤ 갑은 귀납적 방법, 을은 연역적 방법을 통한 진리 탐구를 강조한다.

4. (가), (나) 사회사상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자아는 선택에 우선하는 도덕적 끈들에 매여 있지 않은 주권자의 위치를 차지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스스로 창조하고 만들고 선택하는 인간'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나) 자아에 관한 질문은 사람들과의 교류 속에서 본래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아는 '대화의 땅'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① **(가)는 공동체로부터 독립된 자아의 형성이 가능하다고 본다.**
- ② (나)는 개인의 정체성이 개인의 선택만으로 구성된다고 본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모든 개인이 공동선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공동체를 개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본다.
- ⑤ (가), (나)는 공동체가 개인의 가치관에 개입할 수 없다고 본다.

5. (가)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나는 정의(正義)란 인간 영혼의 세 부분이 제 기능을 잘 수행하여 서로 조화를 이룬 상태이며, 정의롭지 못함은 이들 세 부분 사이의 분쟁 상태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정의로운 사람은 정의롭지 못한 사람에 비해 분명히 더 행복하다. 그런데 어떤 사상가는 “정의는 더 강한 자의 이익일 뿐이며, 정의로운 사람은 정의롭지 못한 사람에 비해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 사상가의 입장이 [㉠]고 생각한다.

- ① 감각적 경험을 통해 정의를 인식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② 정의 실현을 위해 권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을 간과한다
- ③ 정의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임을 간과한다
- ④ 정의로운 삶과 행복한 삶은 서로 별개의 것임을 간과한다

⑤ 정의를 참된 근원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음을 간과한다

6.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 B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덕(德)은 실천함으로써 비로소 얻게 된다. 즉 우리는 옳은 행위를 함으로써 옳게 되고, 용감한 행위를 함으로써 용감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입법자들은 시민들로 하여금 좋은 습관을 가지게 함으로써 좋은 시민을 만들고자 한다.

(나)

(가) 사상가의 입장을 탐구한다.

A

아니오

B

예

(가) 사상가의 입장

< 보 기 >
ㄱ. A: 그 자체로 나쁜 행동에도 중용의 상태가 있는가?
ㄴ. A: 실천적 지혜는 품성적 덕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가?
ㄷ. B: 의지의 나약함이 악덕의 원인이 될 수 있는가?
ㄹ. B: 행복이란 덕과 일치하는 영혼의 활동인가?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7. (가) 사상가의 입장에서, (나) 그림과 같이 주장한 사상가에게 제기 할 수 있는 비판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무릇 발(發)하는 것은 기(氣)요, 발하는 까닭은 이(理)이다. 기가 아니면 능히 발하지 못하고 이가 아니면 발할 까닭이 없는 것이니, 이기호발(理氣互發)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나)

- ① 칠정을 사단의 선한 측면으로 봐야 한다.
- ② 이와 기는 서로 분리시켜서 파악해야 한다.
- ③ 사단은 사덕의 단서이므로 순선하다고 봐야 한다.
- ④ 사단은 기가 발하고 이가 거기에 타는 것으로 봐야 한다.
- ⑤ 칠정과 사단이 발하는 연원을 서로 다르게 파악해야 한다.

8.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쾌락은 곧 행복이며 삶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쾌락과 고통의 양을 측정하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따르는 것이 옳은 행위입니다.
을: 제가 보기에 당신은 [㉠]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은 외적인 요소에 좌우되지 않고 주체적 결단을 통해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행위할 때 실현됩니다.

- ① 쾌락만을 추구하다 보면 절망에 빠질 수 있다
- ② 개인의 행복이 모여 사회 전체의 행복이 된다
- ③ 윤리 규범의 준수를 통해서도 쾌락을 얻을 수 있다
- ④ 육체적 쾌락과 정신적 쾌락을 동등하게 추구해야 한다
- ⑤ 보편적 도덕 원리는 쾌락이 아닌 이성에 근거해야 한다

- 3 / 6 -

9. 갑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의 A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쾌락은 곧 행복이며 삶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쾌락과 고통의 양을 측정하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따르는 것이 옳은 행위입니다.
을: 제가 보기에 당신은 [가]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은 외적인 요소에 좌우되지 않고 주체적 결단을 통해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행위할 때 실현됩니다.

<문제 상황>

○○어촌 마을 사람들은 인근 연안 수산 자원의 급격한 감소를 막기 위해 마을 회의를 열어 가구당 포획량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A는 자신의 남은 선박을 새 것으로 바꾸고 싶어 마을 회의의 결정을 어기고 몰래 조업을 더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다.

- ① 그 자체로 선한 선의지에 따라야 합니다.
② 마을 전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③ 마을의 전통에 따라 올바른 행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④ 약속을 지키는 것이 무조건적 의무임을 알아야 합니다.
⑤ 수산 자원이 지닌 내재적 가치를 존중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10. 다음을 주장한 고대 중국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진인(眞人)은 삶을 기뻐할 줄 모르고, 죽음을 미워할 줄도 모른다. 태어남을 기뻐하지 않고, 죽음을 거역하지도 않는다. 무심히 자연을 따라가고 무심히 자연을 따라올 뿐이다. 그 시초(始初)를 모르고, 그 끝을 알려 하지 않는다.

- ① 인간의 필요에 따라 사물을 평가해야 하는가?
② 인간의 감각에 근거한 진리 추구를 해야 하는가?
③ 시비선악(是非善惡)의 분별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④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도덕규범을 만들어야 하는가?
⑤ 외물(外物)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비판하는가?

11. 조선 시대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성(性)은 심(心)이며 생동하는 이치[理]이다. 그 이치 속에는 밝게 깨닫는 능력이 있어 스스로 두루 통하여 어두운 것이 없다. 이것이 본래부터 고유한 덕으로서 곧 양지(良知)이다.
을: 성(性)은 사람 마음의 기호(嗜好)를 말한다. 이는 채소가 거름을 좋아하고 연꽃이 물을 좋아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늘이 부여한 것이다.

<보기>

- ㄱ. 갑은 도덕적 실천이 마음의 이치와 무관하다고 본다.
ㄴ. 을은 인간이 선(善)을 좋아하는 기호를 타고난다고 본다.
ㄷ. 갑은 을과 달리 인간에게는 도덕적 주체성이 있다고 본다.
ㄹ. 갑, 을은 모두 노력을 통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분배 정의의 조건은 그 분배 하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갖는 것이다. 이러한 소유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가 바로 최소 국가이다.
을: 분배 정의는 복잡 평등을 추구한다. 복잡 평등은 어떤 시민이 한 영역 내지 특정 사회적 가치에 대해 갖는 지위를 이용해 다른 가치 영역을 침해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 ① 갑은 복지 정책을 통한 소득 재분배를 정의로운 것으로 본다.
② 갑은 취득·양도에서의 부정의를 교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③ 을은 문화적 차이를 배제하는 정의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본다.
④ 을은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들의 분배 기준이 달라야 한다고 본다.
⑤ 갑, 을은 정의의 원칙이 가상적 상황에서 도출되어야 한다고 본다.



전자문제집 CBT(App Store) : [다운로드](#)



전자문제집 CBT(Google Play) : [다운로드](#)

13. 그림은 어떤 학생이 작성한 노트 필기의 일부이다. (ㄱ) ~ (ㄴ) 중 옳지 않은 것은?

주제: 한국의 불교 사상

1. 원효의 사상

- 대립되는 논쟁을 조화시킨다는 의미의 화쟁(和諍)을 주장함 ㉠
- 일심(一心)은 이원적 대립을 초월하는 절대불이(絕對不二)한 것임을 강조함 ㉡

2. 의천의 사상

- 교학과 선(禪) 불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화해를 모색함
- 경전 읽기와 참선 수행을 함께 해야 함[敎觀兼修]을 강조함 ㉢

3. 지눌의 사상

- 깨달음에 이르는 선 수행의 한 부분으로 교학을 받아들임
- 깨침과 닦음이 동시에 완성된다는 것[頓悟頓修]만을 강조함 ㉤
- 마음의 본체(定)와 마음의 작용[慧]은 분리될 수 없음을 주장함...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ㄴ)

14. (가)를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관점에서 (나) 퍼즐 속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이성적 존재자들은 자기 자신과 다른 모든 이들을 결코 한낱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서 대우해야만 한다는 법칙 아래 동속해 있다. 이로부터 공동의 객관적인 법칙들에 의한 이성적 존재자들의 체계적 결합, 즉 목적의 나라가 생긴다.																								
(나)	<table border="1"><tr><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A)</td><td></td><td></td></tr><tr><td></td><td>(B)</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p>[가로 열거]</p> <p>(A): 사람의 힘을 가하지 않은 그대로의 모습 또는 그런 이상적인 경지를 뜻하는 도가의 용어. 무위○○</p> <p>(B): 지켜야 할 규범이나 규율을 일컫는 말. 예) 세속 오계(世俗五戒)는 원광이 화랑에게 일러 준 다섯 가지 □□이다.</p> <p>[세로 열거]</p> <p>(A): 개념</p>										(A)				(B)										
			(A)																						
	(B)																								

① 자유 의지를 부정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다.

② 사회적 승인을 유발하는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③ 자연적 경향성에 따라 최대의 행복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④ 개인의 자유로운 이성을 통해 의무 의식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⑤ 실천 이성의 명령에 따라 도덕 법칙을 수립하고 따르는 것이다.

15. 그림은 고대 중국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성인(聖人)은 억지로 일을 하지 않으므로[無爲] 백성이 저절로 바뀌고, 욕심을 내지 않으므로[無欲] 백성이 저절로 순박하게 됩니다.

성인은 본성을 교화하여 인위[僞]를 일으키고, 예의(禮義)와 법도(法度)를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두면 사회가 혼란해집니다.

갑

을

① 갑은 무위정치를 통한 문명의 발달을 추구한다.

② 을은 예를 통한 선천적 도덕성의 확충을 강조한다.

③ 갑은 을과 달리 인위를 사회 혼란의 원인으로 파악한다.

④ 갑, 을은 인의(仁義)의 실현을 위한 통치자의 역할을 강조한다.

⑤ 갑, 을은 올바른 정치를 위해 백성이 무지(無知)해야 함을 강조한다.

16.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무릇 천도(天道)는 형상이 없는 것 같으나 자취가 있고, 지리는 넓은 것 같으나 방위가 있다. 한울의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어 천지만물이 나오지만 오직 사람이 가장 신령한 것이다.

을: 일원(一圓)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며, 대소유무(大小有無)의 분별이 없는 자리이며, 선악의 업보가 끊어진 자리이며, 공(空)한 자리이다.

병: 해원(解冤)시대에는 양반이나 상놈의 구별, 남녀의 차별, 직업의 귀천을 가리지 않아야 하고 만고에 쌓인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를 세워야 한다.

① 갑은 고유 사상을 바탕으로 유 · 불 · 도 사상을 수용하였다.

② 을은 종교적인 수행과 사회적 실천의 통일을 강조하였다.

③ 병은 무속과 도가를 독자적으로 해석하여 사상을 발전시켰다.

④ 을, 병은 갑과 달리 신분 차별이 없는 평등 사회를 지향하였다.

⑤ 갑, 을, 병은 모두 후천개벽(後天開闢)의 실현을 주장하였다.

17. 다음 사회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노동하는 인간이 노동 수단, 즉 생활 원천을 독점한 자에게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있는 것은 모든 경제적 빈곤과 도덕적 타락 및 정치적 종속의 주된 원인이다. 따라서 폭력 혁명을 통한 노동자 계급의 경제적 해방이야말로 궁극적 목적이며, 모든 정치 운동은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 목적 아래 놓여야 한다.

- ① 의회 활동을 통한 점진적 사회 개혁을 강조한다.
- ② 계급 투쟁으로 인한 자본주의 붕괴의 필연성을 강조한다.
- ③ 자본주의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 ④ 사유 재산을 인정하여 필요에 따른 분배를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 ⑤ 노동자는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본가와 연대해야 한다고 본다.

18. (가) 그림의 중국 사상가 갑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ㄱ)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너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다. 모든 법(法)은 마음에 있다. 어찌하여 진여(眞如)의 성품을 단박에 깨달지 못하는가.

깃발이 움직이는 것입니까?

비밀이 움직이는 것입니까?

갑

(나)

_____ ㉠ _____. 그것만 한다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 ① 본성을 직관(直觀)하라
- ② 점진적으로 수행(漸修)하라
- ③ 경전(經典) 공부에 전념하라
- ④ 교리에 대한 이론적 탐구에 몰두하라
- ⑤ 마음의 수양을 통해 악한 본성을 제거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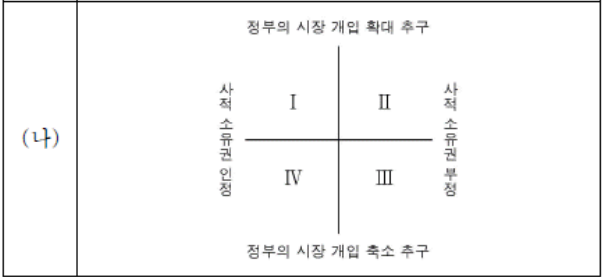
19. (가)의 갑, 을의 사상적 입장을 (나) 그림으로 나타낼 때, 갑, 을의 입장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순서대로 갑, 을)

(가)

갑: 국가는 조세 체계, 이자율 결정 등의 여러 방식을 통해 소비 성향에 주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국가의 공공 정책은 유효 수요를 창출하며 시장의 불안정성을 완화시킨다.

을: 중앙집권적 계획은 독재 정치 못지않게 개인의 자유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노예의 길로 이끈다. 우리의 역사적 경험은 경제적 자유 없이는 개인적, 정치적 자유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나)



정부의 시장 개입 확대 추구

사적 소유권 인정

I

II

III

IV

사적 소유권 부정

정부의 시장 개입 축소 추구

- ① I, II
- ② I, IV
- ③ II, III
- ④ II, IV
- ⑤ IV, III

20. 다음은 중국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앎을 극진하게 이루고자 한다면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궁구(窮究)해야 합니다. 천하의 사물에는 모두 이(理)가 내재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궁구하지 못한 까닭에 내 앎이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을: 아닙니다. 마음이 곧 이치[心卽理]이므로 나의 앎을 극진하게 이루고자 한다면, 다만 마음을 계속 확충시켜 나아가 본성을 발휘하기만 하면 됩니다.

< 보 기 >

ㄱ. 마음 밖에는 어떠한 이치[理]도 없는가?

ㄴ. 격물(格物)은 내 마음의 본체를 바로잡는 것인가?

ㄷ. 지행(知行)의 선후를 논하면 지가 행보다 앞서는가?

ㄹ. 사사로운 욕심을 없애고 천리(天理)를 보존해야 하는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